

교란생물 제거... 국립공원 생태계 지킨다

목포에서 서쪽으로 64km 떨어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신안군 비금면의 작은 무인도 칠발도. 국제 보호종인 바다제비 1만쌍을 비롯해 바다쇠오리 3000쌍, 습새 1000쌍 등 바닷새 3종과 매(멸종위기 1급), 섬개비(멸종위기 2급), 바다작박구리가 서식하고 있다. 특히 바다제비는 크기 20cm 정도의 여름철새로, 전 세계 바다제비 10마리 중 7마리가 이 곳에서 번식한다. 하지만 이 곳엔 다리와 날개가 영커 날개짓을 못하게 옥죄는 외래식물 쇠무릎이 왕성하게 번식해 바다제비의 텃이 되고 있다.

진도군 남동리의 남도석성 인근 갯벌에서는 드넓게 자라난 풀을 뿌리째 뽑아내고 있다. 환경부·해양수산부 공무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자원봉사자 등 민·관이 총망라된 대규모 인원이 갯벌에 투입된 이유는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한국의 서남해안 갯벌을 송두리째 잠식할 수도 있는 생태계 교란생물 '갯줄풀'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신안군 비금면 칠발도에서 외래식물인 쇠무릎을 제거하는 모습.



진도군 남동리 남도석성 인근 갯벌 갯줄풀 제거 활동.

무등산의 돼지풀과 도깨비가지, 구례 지리산의 애기수염, 장성 백암산·영암 월출산의 돼지풀, 완도 다도해의 돼지풀과 신안 다도해의 갯줄풀... 광주·전남지역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들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무등산·지리산·월출산·다도해 등 전국 국립공원 20곳에서 생물다양성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생태계교란 생물들을 퇴치했다.

이 작업에는 환경부·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시민단체·군부대·자원봉사자·지역 주민 등 2000여명이 참가했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물다양성 보전·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래생물 가운데 생태계 균형을 교란시키거나 교란할 우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다도해 등지서 퇴치 활동

신안 칠발도 쇠무릎 없애니 바다제비 폐사 20% 줄어

러가 있는 생물을 말한다. 교란 생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뉴트리아·황소개구리·파랑불우럭(블루길)·돼지풀 등 동물 6종과 식물 14종 등 총 20종이 지정돼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주로 낮은 지대의 탐방로·도로·휴경 농지·저수지 등에 분포한다. 왕성한 번식력으로 국립공원 내 고유종의 서식지를 잠식하고 있다.

그동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생태계교란 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화기·

산란기 등 종별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제거 활동을 계속 벌였다

최근 5년간 황소개구리·파랑불우럭 등 생태계교란 동물 5만695마리를 포획했고, 290만9974㎡ 일대에서 돼지풀 등 식물종을 제거했다. 특히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는 올해 새롭게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갯줄풀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갯줄풀은 2015년 다도해해상 진도지구에서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중국에서 조류를 타고 종자가 밀려와 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무인도인 칠발도에서는 바닷새를 폐사시키는 비름과의 여러해살이 식물인 쇠무릎을 제거하고 고유종인 밀사초를 심는 작업을 했다. 바다제비 등 바닷새가 갈고리 모양의 쇠무릎 종자에 걸리면서 매년 500여 마리 이상 폐사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5년간 칠발도에서 2만175㎡의 구역에서 쇠무릎을 제거했고, 이 자리에 밀사초 8만2655여개체를 심었다. 밀사초를 심은 이후 바다제비의 폐사수를 조사한 결과, 2014년도 558마리에서 지난해 448마리로 폐사수가 20% 정도 낮아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나도좀개구리밥' 순천 동천 등 서식 확인

국내 미기록종 담수식물인 '나도좀개구리밥'(사진)이 순천 동천습지를 비롯한 전국 하천, 습지, 논, 호소 등에서 서식하고 있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환경부가 최근 밝혔다.

당국은 나도좀개구리밥이 번식력이 뛰어나고 수질정화, 물속 오염물질의 독성평가, 축산사료, 녹색비료, 바이오연료 등 다양한 용도로 쓰여 유용한 생물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좀개구리밥속' 식물은 '좀개구리밥' 1종(種)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최근 담수생물 조사 중 '좀개구리밥속' 내에서 유전적으로 차이가 나는 '나도좀개구리밥'의 존재를 확인했다.

'나도좀개구리밥'은 '좀개구리밥'과 외형은 비슷하나 뿌리의 부착점(기부)을 감싸는 싸개에 날개가 없고 전체 모양이 '좀개구리밥'이 타원형에 가까운 데 비해 '나도좀개구리밥'은 원형에 가까운 줄 더 둥근 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흔히 논이나 농수로에서 발견되어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좀개구리밥속' 식물은 높은 활용성과 전국적인 분포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수질정화, 농축산산업, 바이오연료 등 산업화와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될 경우 우리에게 유용한 식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좀개구리밥속 식물은 수생태계에서 왕성하게 자라 암모늄 같은 질소원 흡수하고 물 속 부영양화를 감소시키는 정화 식물로 중국 등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진 환경부제공)

다도해국립공원 자연 훼손 집중 단속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여름 성수기(7월16일~8월 15일) 동안 탐방객 증가로 예상되는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단속팀은 단속기간 무인도 등 출입금지 구역 출입, 낚시행위, 취사·야영, 흡연, 오물투기, 임산물 채취 등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다

도해해상서부사무소 송도진 해양자원과장은 "불법, 무질서행위 단속으로 서남해안 생태계 보호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전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올 상반기 동안 해상 동물포획 및 야생식물 채취 등 25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 지난해 석면 제거 1712건

전국 누적 석면피해자 2184명

2011년 이후 정부가 인정한 누적 석면피해자가 2184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은 광주 418건, 전남 1294건, 전북 873건 등 총 1만8149건이 진행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환경성 석면피해자가 현재까지 2076명, 석면으로 인한 산재 승인 노동자가 108명이라고 밝혔다.

환경성 석면피해자는 2011년 4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12년 456명, 2013년 346명, 2014년 270명, 지난해 333명이 인정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12명이 환경성 석면피해를 인정받았다.

피해를 인정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생존자는 1468명, 사망자는 608명이었

지만 석면 질환이 발병 후 1년 이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센터는 고용노동부가 국회 이정미 의원의 질시에 제공한 자료와 한국환경공단이 공개한 자료를 인용, 지난해 한 해 동안 1만8149건의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평균 7일간 이뤄진다고 보면 매일 전국에서 350여 건의 석면비산 유발 작업이 이뤄지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석면공사가 이뤄지는 공간이 지하철 역사와 학교, 병원,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석면을 흡입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업성 석면피해자(산재)는 2011년 19명, 2012년 15명, 2013년 19명, 2014년 35명, 지난해 20명이 인정됐다. /연합뉴스

국립공원 지정 3주년 16일 '무등산국립공원 힐링콘서트'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3주년을 기념해 오는 16일 오후 7시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무등산국립공원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콘서트는 KBS교향악단 단원으로 구성된 콰르텟 아모르(임정연 부수석 외 3명)의 공연을 시작으로 7명(팀)의 가수와 댄서들의 공연이 잇따라 펼쳐진다. 화려한

싱글이라는 노래로 유명한 양혜승씨도 무대에 오른다.

콘서트 시작 전 오후 5시부터는 국립공원 사진전시회, 기마순찰대 말타기 체험, 국립공원 체험프로그램 안내, 먹거리 체험 등이 진행된다. 특히 속리산국립공원에서 활동 중인 기마순찰대가 진행하는 말타기 체험은 평소 말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

으로 보인다.

이영석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광주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덕분에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서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콘서트를 계기로 무등산 국립공원이 시민들에게 좀 더 친숙한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신축 4층 상가원룸 매매

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

신축 상가원룸 / 3면 대리석 시공 / 코너자리

1층 (커피숍)
2층~3층 (원룸 6개, 투룸2개)
4층 (고급주택) 34평
화장실2개, 방3개, 다용도실, 옥상사용가능

★ 4층(주택) 거주 하면서
월수익 370만!!

▣ 매가 → 6억 8천만 (웅1억5천)

010-6670-9800 010-7384-7800

평택 토지 매매

★ 삼성전자 120평 ★
평택 신도시 530만평

평택항 현덕지구 70만평(여의도크기) 미군기지 이전

- ① 평택시 고덕면 방촌리 (고덕교차로 7분) 120평 (평당 200만)
▶ 매가 2억4천만
- ②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포승공단 옆) 922평 (평당 30만원)
▶ 매가 2억7천600만
- ③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포승공단 5분) 492평 (평당 30만원)
▶ 매가 1억4천7백60만
- ④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고덕 신도시 10분 613평 (평당 95만)
▶ 매가 5억8천235만
- ⑤ 평택시 고덕면 동창리 (고덕 신도시 5분) 2,233평 (평당 35만)
▶ 매가 7억8천만

평택 토지 전문 010-6832-9700 / 062-511-7800